

칼리반과 카리브 해의 정체성

송병선

1. 셰익스피어의 『태풍』과 칼리반

셰익스피어의 희극 『태풍』은 『햄릿』의 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대적으로 짧은 작품이지만, 수많은 비평과 시 혹은 소설에서 과도할 정도의 반응을 불러일으킨 문제작이다. 식민자/피식민자 관계의 은유로 읽힌 이 작품에는 카리브 해, 아니 보다 넓게는 라틴아메리카 정체성과 지성사를 이야기할 때면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는 프로스페로, 칼리반, 아리엘이라는 상징이 등장한다. 프로스페로는 밀라노의 백작이었다가 형제 안토니오에 의해 왕좌에서 추방된 후, 딸과 함께 바다에 버려져 파도에 휩쓸리다가 어느 섬에 도착한다. 이곳은 마녀 시크락스가 추방되어 사는 장소이다. 프로스페로는 마법을 이용하여 여러 요정들을 시크락스의 손에서 해방시킨다. 그 중의 하나가 아리엘로, 이제 그는 프로스페로의 명령을 따른다. 또한 마녀의 아들이자 그 섬의 유일한 주민인 추한 괴물 칼리반도 프로스페로의 지시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프로스페로와 미란다는 거의 12년 동안 그 섬에 살고 있었다.

작품이 시작되면서 나폴리의 왕인 알론소와 밀라노 공작을 가로챈 안토니오, 그리고 알론소의 동생 세바스티안과 왕자 페르디난드를 비롯해 여러 신하가 타고 있던 배가 프로스페로가 부린 마법 때문에 바다에서 표류한다. 승객들은 목숨을 구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페르디난드가 물속



장 피에르 시몽, 〈프로스페로, 미란다, 칼리반, 아리엘〉(1797)

에 빠져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는 나머지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한다. 프로스페로의 계획에 의해 페르디난드와 미란다는 사랑에 빠지고 결혼을 약속한다. 프로스페로는 페르디난드에게 나무를 끌어오라고 하고, 미란다는 자기 약혼자를 불쌍히 여기며 바라본다.

한편 섬의 다른 한쪽에서는 세바스티안과 안토니오가 알론소와 추방된 프로스페로를 도와주었던 ‘늙고 정직한 자문관’ 곤살로를 죽이려고 한다. 그리고 칼리반은 술고래인 집사 스테파노와 어릿광대 트린쿨로에게 프로스페로의 속임수에 넘어가 그 섬의 주인이었던 자기가 프로스페로의 노예가 되었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두 사람을 설득해 프로스페로가 잠을 자는 동안 그를 죽이도록 음모를 꾸미게 한다. 또한 미란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하면서, 그녀를 차지하려면 프로스페로를 죽여야 한다고 부추기기도 한다. 그러자 프로스페로의 노예이자 요정인 아리엘은 이런

사실을 자기 주인에게 알린다.

드디어 프로스페로를 죽일 날이 다가오자, 칼리반과 스테파노, 그리고 트린쿨로는 나무에 걸린 왕의 의상을 보고 한눈을 판다. 칼리반은 두 사람에게 그 옷에서 멀리 떨어질 것을 경고하려고 하지만, 그렇게 하지는 못한다. 프로스페로는 마법을 이용하여 그들을 공격하여 내쫓아버린다. 그런 후 아리엘은 왕과 그의 신하들을 프로스페로의 집으로 데려온다. 거기서 자기 친구 곤살로에게 인사를 하고, 자기가 다시 밀라노의 공작으로 돌아간다는 조건으로 형제 안토니오를 용서한다. 알론소는 미란다와 체스를 두고 있던 아들 페르디난드와 만나고, 두 사람의 결혼을 승낙한다. 그들이 너무나 훌륭하게 수리된 배를 타고 떠나기 전에, 프로스페로는 아리엘을 노예의 상태에서 해방시키고, 칼리반을 다시 그 섬에 혼자 놔둔다.

카리브 해 지역에서는 많은 작가들이 『태풍』의 배경이 되는 섬이 카리브 해의 섬이며 ‘칼리반’이 다양한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고 여기면서, 이 셰익스피어의 희극을 읽고 다시 쓰는 작업을 한다. 그렇게 ‘칼리반’은 다양한 해석을 불러일으키면서 카리브 해 정체성 논쟁의 중심으로 자리 잡는다. 조지 래밍의 『망명의 기쁨』(1960)은 의심할 여지없이 셰익스피어의 『태풍』을 카리브 해의 인종과 계급 그리고 국가성의 새로운 관계를 이해하려는 최초의 노력이다. 그는 카리브 해의 과거는 미래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과거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방법으로 칼리반을 옹호한다.

또한 네그리튀드 운동의 공동창시자인 마르티니크의 작가 에메 세제르는 1969년의 극작품 『태풍』에서 셰익스피어의 『태풍』을 유럽 식민주의에 대한 반항의 관점에서 재서술한다. 그는 프로스페로를 칼리반의 자기 결정성을 찬탈하는 수탈하는 사람으로 보여주고, 칼리반을 자유의 권리를 주장하는 억압받은 사람으로 보여주고자 한다. 세제르는 민권 운동가들과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고 셰익스피어의 인물들을 윤색한다. 이 작품에서 프로스페로는 노예를 혹사하는 수탈자로 그려진다. 그는 칼리반의 약점을 먹이로 삼아서 자기의 마법을 사용하여 칼리반의 자유를 빼앗는다. 여기

서 프로스페로는 열등감을 보여준다. 셰익스피어의 『태풍』과는 달리, 여기서 프로스페로는 인자한 성격을 지니지 않는다. 대신 그는 권력에 탐욕과 배고픔을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세제르는 셰익스피어의 무지한 야만인 칼리반을 식민화된 원주민으로 탈바꿈시킨다. 그의 언어와 문화는 프로스페로의 언어와 문화로 대체된다. 자유에 대한 그의 주장은 배신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정복되고 노예화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반항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바베이도스의 시인이자 역사가인 에드워드 브래스웨이트는 1969년에 출판된 자신의 시집 『섬』에 「칼리반」이라는 시를 포함한다. 브래스웨이트는 세제르의 극작품을 알지 못했지만, 칼리반을 카리브 해 섬의 대다수 주민을 대표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즉, 세제르가 초기 시, 특히 『귀향 수첩』에 담긴 네그리튀드의 관점과 동일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1970년대 초에 쿠바의 시인이자 비평가인 로베르토 페르난데스 레타마르가 카리브 해의 문학과 역사를 프로스페로의 관점이 아닌 칼리반의 관점으로 연구할 것을 제안하면서, 카리브 해 지역의 문화연구에서 ‘칼리반’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그로부터 20년 후, 미국의 신역사주의 학자인 그린블라트는 「문화」라는 에세이에서 페르난데스 레타마르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하면서, 프로스페로와 칼리반을 연구한다. 이후 1990년대에 들어 칼리반을 주제로 다루는 두 권의 중요한 저작이 출판된다. 알덴 T. 벤의 『셰익스피어의 칼리반: 하나의 문화사』(1991)와 해롤드 블룸이 편집한 『칼리반』(1992)이 그것이다. 이것 이외에도 카리브 해와 아프리카 작가들은 이 칼리반을 주제로 많은 작품들을 쓰게 된다. 이로 인해 ‘칼리반학’(Calibanology)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현재의 문학과 문화연구는 칼리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2. 칼리반, 카니발, 카리브

흔히 ‘카리브’(caribe)란 말은 남아메리카의 북부와 소 앤틸리스 제도와 중앙아메리카의 동부 해안에 살고 있던 ‘카립’(carib)에서 비롯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거기에서 식인종인 ‘카니발’이라는 말이 유래하고, 칼리반은 ‘카니발’이라는 식인종의 개념을 출발로 셰익스피어가 만들어낸 아나그램, 즉 철자를 바꾸어 만들어낸 단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한편 카니발은 ‘카리브’(caribe)에서 유래하는 말이다. 카리브 족은 카리브 해의 섬에서 가장 용감



나무를 지고 있는 칼리반

하고 호전적이었고, 유럽인들에게 영웅적으로 저항했던 종족이기도 하다. 그 종족의 이름은 ‘카리브 해’라는 지리적 명칭뿐만 아니라, ‘카니발’이라고 변형되고 왜곡되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카니발은 식인종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언급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항해일지』에 처음으로 등장한다. 그가 신대륙에 도착하여 한 달도 되기 전인 1492년 11월 4일 일요일 일지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다. “저 멀리에는 외눈박이들이 있고, 개의 주둥이를 지니고 사람들을 먹어치우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해 주었다.” 또한 11월 23일자 일지에도 “그 섬(아이티 섬)이 매우 크며, 그곳에는 이마에 눈이 하나 있는 사람들이 있고, ‘카니발’이라고 불리는 또 다른 사람들도 있다고 전해 주었다.”라는 등장한다.

카리브라는 말은 바로 카니발이 변형된 것이다. 그런데 카리브/카니발의 이미지는 콜럼버스가 가장 먼저 도착했던 장소의 타이노 원주민들을 온순하고 평화롭고 겁이 많다고 설명하는 것과는 상반된다. 신대륙 원주민에 대한 이런 상이한 두 관점은 전 유럽으로 급속히 전파되고, 유럽인

들은 이런 상반된 시각으로 카리브 해를 바라보게 된다. 우선 타이노 원주민은 유토피아적 세계에 사는 천국의 주민으로 다루어진다. 가령 토머스 모어는 쿠바와 상당한 유사성을 띠고 있는 『유토피아』를 출판하는데, 그 책에서 언급하는 장소는 쿠바와 상당한 유사성을 띠고 있다. 한편 ‘카리브’는 문명의 세계와는 동떨어진 채 살아가는 야만적 인간이자 식인종이며, 총과 피로 맞서 싸워야만 하는 ‘카니발’이라는 이름으로 발전된다.

그러나 이런 두 가지 관점 모두 신생 부르주아의 이데올로기를 반영하고 있을 뿐이다. ‘천국의 주민’이라는 개념은 신생 부르주아가 맞서 싸우고 있던 봉건제 세계의 문제를 알지 못하는 완벽한 사회의 이상적 모델이었다. 이것은 유럽 국가들이 실현하지 못했던 정치적 개혁안을 카리브해 국가들에게 제시하면서, 이상적 유토피아를 꿈꾸게 만들었다. 반면에 ‘카니발’이라는 괴물의 개념은 중세 식민주의자들의 뇌리에 깊이 새겨지고, 카리브 족뿐만이 아니라 흑인들에게 적용되어, 그들을 말살하거나 학대하는 정책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이런 식민주의적 생각은 전 카리브 해에 유포되어 진실처럼 여겨진다.

이것은 식민주의자들이 잔인하고 용감한 카리브족을 말살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생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평화롭고 순진한 타이노족까지 모두 죽였다는 것은 설명이 되지 않는다. 식민주의자들은 역사에 기억될 만한 최대의 인종 학살을 카리브 해에서 저질렀던 것이다. 어쨌든 카리브 해 지역은 라틴아메리카에서 원주민이 완전히 학살되었던 유일한 장소였고, 이것은 토착주의를 강조하지 않는 반식민주의적 담론의 등장을 용이하게 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사이드를 비롯한 탈식민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공동의 영토나 혼종 공간을 현실 속에서 보여주는 곳이다. 카리브 지역에서 유럽중심주의의 산물인 순수성과 목적론을 거부하는 ‘문화 횡단’이나 ‘칼리반’의 개념이 나온 것은 우연이 아니었던 것이다.

카리브 해 연구에서 칼리반이 중요한 것은 셰익스피어 희극에 등장하

는 인물이 지닌 함축적인 은유 때문이다. 특히 칼리반의 모습에서 왜곡되어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추출하여 칼리반의 복권을 모색했기 때문이다. 페르난데스 레타마르는 『칼리반: 아메리카의 문화토론을 위한 글』에서 이렇게 말한다. “우리의 상징은 로도가 생각했듯이 아리엘이 아니라 칼리반이다. 이것은 칼리반에 살았던 이 섬들(카리브해의 섬들)에 살고 있는 혼혈인들에게서 아주 분명하게 볼 수 있다. 프로스페로는 우리의 섬을 침략해서 우리의 조상들을 죽였고, 칼리반을 노예로 만들어 그에게 자기의 언어를 가르쳐 자기와 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자기 정체성의 확인 과정을 통해, 식민적 현실의 모순을 깨닫고 그 모순을 해결해나가는 해체작업이 이루어진다. 해체되어야 할 대상은 정전에 의해 고착화된 이데올로기이었다. 그렇게 부당하게 주변부로 밀려났던 것의 중심화 작업이 진행된 것이다. 로베르토 페르난데스는 이제는 현대 라틴아메리카 문화연구에서 고전이 된 『칼리반』에서 문학과 문화 담론에서 전통적 서구에 깊이 뿌리를 박고 있는 이런 담론의 역사를 추적한다. 그는 셰익스피어가 칼리반을 주로 몽테뉴의 에세이(카니발에 관하여)에서 취했다고 주장하지만, 칼리반의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책은 『태풍』이라고 말한다. 이 극작품에서 프로스페로는 칼리반의 섬을 빼앗고 칼리반에게 언어라는 선물을 준다. 이 선물을 받은 칼리반은 프로스페로의 명령에 가장 일 잘하는 노예가 된다. 칼리반은 자기가 배운 언어로 프로스페로를 증오하고 그에게 욕을 한다. 이것은 노예 칼리반이 자신을 박해한 사람에게 욕을 하면서 주인-노예의 관계를 전복시킬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3. 로베르토 페르난데스 레타마르와 『칼리반』

로베르토 페르난데스 레타마르의 『칼리반』은 1971년에 출판되면서,

라틴아메리카를 비롯한 그 이외의 지역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이 글이 주목을 받은 이유는 논쟁적 성격을 띠면서 라틴아메리카만의 특수한 문화적 정체성을 고려할 문학비평의 양식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며, 바로 이런 이유로 시간의 흐름을 견디고 지금까지도 논의되는 것이다. 이 글을 출발로 칼리반은 라틴아메리카 신비평, 즉 텍스트의 내재적 분석보다 사회정치적 접근을 우선시하는 라틴아메리카 비평의 간판이 된다.

그러나 최근에 이 글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한다. 시간이 갈수록 페르난데스 레타마르가 에드워드 사이드나 가야트리 스피박과 같은 탈식민주의 사상가들과 버금가는 평가를 받게 된 것이다. 1989년 『칼리반』의 영어번역본에서, 페르난데스 레타마르는 “유럽 중심적 식민주의와 신식민주의 사상을 해체하려는 신중한 노력”이라는 찬사를 받는다. 프레드릭 제임슨은 영역본 서문에서 『칼리반』을 “라틴아메리카의 『오리엔탈리즘』”이라고 말한다. 6년 후 《크리티컬 인콰이어리》(Critical Inquiry)에 출판된 인터뷰에서 페르난데스 레타마르는 파농과 더불어 “탈식민주의 담론으로 알려진 선구자들 중의 하나”라고 평가된다.

흔히 탈식민주의 연구는 “유럽 식민주의의 ‘역사적 사실’과 이런 현상이 야기한 다양한 물질적 효과”로 귀결된다. ‘탈식민주의’의 정확한 연대기적·지리적 의미에 관해서는 많은 견해가 있지만, 주제에 관해 말하자면 그것은 특히 “식민주의 문화와 식민화된 문화의 대결” 혹은 “주변과 중심의 충돌”을 강조한다. 또한 연구 영역으로 비판적이고 대립적인 텍스트 읽기를 통해 일련의 “대안적 독서”를 제시한다.

『칼리반』을 탈식민주의적 관점에서 읽기 위해서는 텍스트의 사회·정치적 상황과 타자의 위치는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작용한다. 이 두 개념은 서로 연결된다. 그것은 탈식민주의 독서가 사회적·정치적 차원을 근본적으로 권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바라보고, 권력은 인종과 문화의 이미지 형성 혹은 왜곡의 과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태풍』은 탈식민주의적 해석을 보여주는 대표작으로 인용된다. 애쉬크로프트

는 『태풍』을 “정전의 탈식민주의 책읽기의 패러다임을 형성하는 데 사용된 가장 중요한 텍스트”라고 말한다. 그의 이런 생각은 브라운, 흄, 그린 블라트 등에게 영향을 끼치고, 영원불멸한 셰익스피어의 고전을 식민주의적 담론으로 재평가하면서, 프로스페로와 칼리반을 식민자-피식민자의 전형으로 만든다.

앞에서 보았듯이 아프리카와 카리브 해 작가들은 오랫동안 억압된 칼리반의 시선으로 이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다시 점검했다. 즉, 주변이 중심보다 앞섰다는 이런 사실은 수많은 탈식민주의 서적들에서 암묵적이거나 명시적으로 다루어진다. 그러면서 주변인들이 더 훌륭하고 세심한 독자들인데, 그것은 억압의 직접적 희생자이기에 문학 작품이나 문학 이론 속에서 ‘거짓 보편성’의 주장에 더욱 민감하다는 주장을 편다. 그래서 조금씩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수십 년 동안 중심의 그늘에 있던 후에 주변이 갑자기 문학과 문학비평에 관해 성찰하기 좋은 장소로 나타난다.

4. 문화적 공동체로서의 카리브 해

페르난데스 레타마르의 『칼리반』은 문화적 정체성에 관한 한편의 에세이로 나타난다. “라틴아메리카 문화는 존재합니까?”라는 어느 유럽 기자의 질문을 출발로, 페르난데스 레타마르는 두 가지의 주장을 전개한다. 첫 번째는 카리브 해를 포함한 라틴아메리카는 정말로 다른 대륙과는 구별되는 특수한 문화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두 번째는 문화 영역에서 라틴아메리카가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부정하거나 그것을 인정하는 정반대의 두 전통을 보여주는데, 그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카리브 해 지역의 문화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페르난데스 레타마르의 첫 번째 주장은 카리브 해 사람들이 주로 스페인어와 영어, 네덜란드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카리브 해가 서구 유럽

문화의 단순한 반영에 불과하다는 피상적인 믿음에 대한 반응과 관련이 있다. 카리브 해는 강도 높은 언어적 식민화를 겪었다는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이런 서구의 언어들은 카리브 해의 자체적인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칼리반’은 카리브 해의 가장 적당한 상징이다. 칼리반은 프로스페로 덕택에 언어를 익히지만, 동시에 그는 프로스페로를 욕하기 위해 이런 지식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칼리반은 이렇게 말한다. “당신이 나에게 말을 가르쳐주었다. 그리고 그 덕택에 나는 욕하는 법을 알게 되었다. 당신은 단독에나 걸려 온몸이 썩어 문드러져라. 말을 가르쳐준 별로!”

두 번째 주장은 카리브 해 문화를 동질적이거나 혹은 조화를 이루는 전체로 제시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 다시 한번 ‘칼리반’을 아날로지로 사용하면, 카리브 해의 섬들은 합법적인 소유권에 대한 프로스페로와 칼리반의 충돌 장면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럴 경우 프로스페로는 제국주의 침략자를 상징하며, 칼리반은 부당하게 억압받은 사람들을 대표한다. 페르난데스 레타마르는 카리브 해의 작가들과 지식인들은 카리브 해의 고통 받는 사람들 편에 있기를 원한다. 다시 말하자면 칼리반의 쪽에 있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칼리반은 이중적 상징이 된다. 그는 특정한 사회계급, 즉 수탈자와 반대되는 사람들이면서 동시에 문화적 공동체인 카리브 해를 언급한다.

그러나 실제로 카리브 해 작가들과 지식인들은 『태풍』의 또 다른 인물인 아리엘이다. 그들은 프로스페로와 칼리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사람이다. 즉, 침략자의 편에 서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혹은 카리브 해 쪽에 서느냐 아니면 그것에 반대하느냐를 선택해야 한다. 만일 카리브 해를 선택하고 침입자들을 거부한다면, 그는 카리브 해 지역의 진정한 문화에 동참하게 된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서구화된 식민지 작가들의 ‘반 카리브 해’에 속하게 된다. 이 두 가지 전통은 모두 카리브 해에서 발견된다. 그러나 그것들은 전혀 화해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태풍』의 몇몇 탈식민주의 독서에서 그랬던 것처럼, 페르난데스 레타마르는 전통적으로 이야기 속에서 주변인으로 간주되었던 인물인 칼리반을 이야기의 중심인물로 부각시킨다. 그는 칼리반을 비순종적인 노예가 아니라, 억압받은 원주민으로 본다. 그러나 페르난데스 레타마르는 더 나아가 ‘칼리반의 변증법’을 통해 칼리반의 타자, 즉 프로스페로가 제시한 왜곡된 그림과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그것을 ‘영광의 기호’로 각인시키려고 한다. 그의 동일시는 기본적으로 칼리반의 언어적 행동인 ‘욕’뿐만 아니라, ‘칼리반’이라는 이름에도 바탕을 두고 있다. 그것은 아나그램을 통해 카니발이 카리브 해를 지칭하기 때문이다.

이것 이외에도 레타마르는 『태풍』에서 아리엘의 역할에도 관심을 보인다. 만일 아리엘이 프로스페로가 아닌 칼리반의 편을 택했다면 이 이야기는 사뭇 달라졌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페르난데스 레타마르의 글은 두 가지 방식으로 셰익스피어 작품에 대한 ‘반 정전적 전략’을 이룬다. 우선 그는 정체성의 상징으로써 타자성의 부정적 상징을 주장한다. 둘째로, 그는 『태풍』을 실제로 있을 수 있는 이야기로 제시하는데, 그 이야기의 끝은 아리엘의 입장과 연관되어 있다. 이런 방식으로 『태풍』은 선택권이 있는 지식인의 의무와 윤리로 확장된다.

따라서 ‘반 정전적’ 에세이로서, 『칼리반』은 두개의 관점에서 분석될 수 있다. 즉, 탈식민주의 분석의 일상적인 접근 방식인 서구 고전에 대한 ‘대립적 해석’뿐만 아니라, 비서구적 고전의 대립으로도 연구될 수 있는 것이다. 적어도 『칼리반』에 나타난 것처럼, 명작과 같은 개념이 과거의 식민주의 권력의 문학에 적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성향을 보여주는 라틴아메리카 자체의 문학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페르난데스 레타마르는 ‘아리엘’을 카리브해의 상징으로 여기는 것은 제국주의적이고 유럽 중심주의적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한다. “[엔리케] 로도가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의 상징은 아리엘이 아니라 칼리반이다. 이것은 칼리반이 살았던 바로 그 섬에서 살고 있는 혼혈인들에

게서 아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지적처럼, 카리브 해의 혼혈인들은 제국주의의 유산인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혼종’을 통해 전복시키면서 자신들의 고유한 혼혈문화를 이루어가고 있다. 카리브 해가 만들어낸 ‘마술적 사실주의’와 같은 개념이 ‘칼리반’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송병선 — 울산대학교 스페인중남미학과 교수